

LG이노텍의 '新인사 실험'...생산직 호봉제 없앤다



윤건일 benyun@ 전자/부품 전문기자

전직원 대상 100% 성과급제 도입
연봉 30%까지 인센티브 확대

노조 있는 대기업 가운데 첫 도입
LG 등 재계 전반 적잖은 파장 예상

LG이노텍이 생산직 현장사원(이하 현장직)에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가운데 현장직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그룹과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LG이노텍은 16일 현장직 전원을 대상으로 연공 중심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그동안 사무·기술직에만 적용해온 성과·역량기반 인사제도를 확대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호봉제를 받아온 현장직 4332명을 포함한 LG이노텍 전 직원(8344명)이 성과급제로 100% 전환됐다.

개편 배경	전문화되는 제조 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	
기대 효과	△생산성 향상 및 직원 전문역량 강화 △공정한 보상을 통한 동기 부여 및 근무 만족도 향상	
주요 변화	임금	호봉제 폐지→ 성과·역량 기반 임금 차등
	평가	공정평가위원회, 이의신청제도 운영
	진급	발탁 승진제 신설
	교육	연 48시간 의무교육 실시, 프로그램 다양화
적용 시점	2016년 1월	

자료: LG이노텍

이번 인사 개편 골자는 현장직원에게도 근속연수가 아닌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급을 보장하면서도 성과와 역량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우수 성과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우수 성과자는 최대 연봉의 30%까지 더 많은 임금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LG이노텍은 기존 호봉제로는 변화된 제조 환경과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기존 인사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회사 측과 토론, 세미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혔다. 평가 공정성 등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최종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현장 팀장과 임원이 참여하는 '공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장 직원들이 창출하는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전했다.

LG이노텍의 이번 인사제도 개편은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일부 대기업에서 현장직 대상으로 인센티브제와 호봉제가 혼합된 형태의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운영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노조가 있는 곳에서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고 100% 성과주의 인사체계를 도입한 것은



LG이노텍 직원이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LG이노텍 제공)

처음이다. LG그룹 내에서도 현장직 대상 호봉제 폐지 및 성과급제 도입은 LG이노텍이 처음 하는 것이어서 다른 계열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아울러 최근 공공기업을 대상으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상태여서 민간 기업 확산 신호탄이 될 이번 LG이노텍 호봉제 폐지에 대한 노동계 대응도 관심이 다.

만들고 배우며 즐기는 '메이커 축제의 장' 열린다

오늘 '2016 메이커 페스티벌' 개막
누구나 참여 가능한 행사 '풍성'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만들고, 배우며, 즐기는 '메이커 축제'가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18일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6 메이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2회째인 '2016 메이커 페스티벌'은 메이커 간 교류와 협력을 돕고, 일반 국민에게 메이커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다.

메이커란 일상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심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 만들기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3D프린팅, 오픈소스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공예, 목공 등으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의 핵심 주체라고 볼 수 있다.

메이커 축제는 지역사회 발명과 창업을 장려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배움의 장이다. 세계 12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메이커 페스티벌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전국적인 메이커 축제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축제는 업사이클링, 공예, 테크, 디자인 등 이색적 메이커 작품 체험형 전시, 메이커 활동 입문을 돕는 만들기 체험교육, 시제품과 창작 공예품



'2016 메이커 페스티벌' 포스터.

이 판매될 오픈마켓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된다. 메이커 글로벌 콘퍼런스, 자작악기 경연대회, 메이커 작품 경매 이벤트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만들기 체험교육에서는 만들기예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활동 입문을 돕기 위한 각종 만들기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오픈마켓에서는 취미와 전문성,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시제품과 창작 공예품 판매가 이뤄져 시장 잠재력이 있는 제품을 발굴한다. 창업 활성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메이커 콘퍼런스는 17일 DDP 앞편관내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주요 연사는 고바야시 시게루 일본 IAMAS대학 교수(오픈소스 HW 분야 전문가), 토드 홀로우백(미디어 아티스트), 최동철 와디즈 본부장(크라우드펀딩 전문가) 등이다.

메이커 활동으로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자작 악기 퍼포먼스 경연대회, 인디밴드 뮤지션과 메이커의 콜라보 공연도 열린다.

메이커 작품 경매 이벤트도 볼 수 있다. 연예인 메이커가 직접 디자인하거나 손수 만든 작품 경매와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을 주제로 연예인과 일반인 메이커의 토크쇼가 열린다.

포미닛 남지현이 직접 만든 고체 향수와 비누, 엑소백현이 직접 디자인한 반려견 점퍼, 엑소시우민 디자인의 헤드기어세트-헤드커버, 엑소디디자인의 파우치 등이 경매 품목으로 구성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메이커 운동은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2016 메이커 페스티벌'에서 많은 국민들이 만들기를 즐기며 다양한 분야의 메이커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메이커 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오디오 허브 SoC로 모바일 사업 확대"

아이언디바이스, 매출 21억 목표

통합 오디오 시스템온칩(SoC) 설계 전문 업체인 아이언디바이스가 스마트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올해 매출액을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높이는 것이 목표다. 연평균 75%씩 성장해 2020년이면 1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한다는 비전도 세웠다.

아이언디바이스는 조만간 오디오 허브 SoC인 MA5205 엔지니어링샘플(ES)을 국내 고객사로 공급해 제품 평가를 받는다. 오디오 허브 SoC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오디오 입력력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코덱과 아날로그디지탈컨버터(ADC), 디지털아날로그컨버터(DAC), 앰프, DC-DC 컨버터 같은 전력관리 기능이 하나로 통합돼 있다.

아이언디바이스는 그간 유럽 가진 고객사와 협력해 소비자 가전제품용 오디오 칩을 공급해 왔다. 올해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블루투스 외장 스피커 등에 탑재될 요량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형 30와트(W) 디지털 앰프칩 MA1502도 신규 매출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 강자는 미국 반도체 업체 시러스로직이다. 애플에 물량을 낸다. 경쟁사였던 유럽 울프슨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며 덩치를 키

웠다. 울프슨은 삼성전자에 오디오 칩을 공급했던 업체였다. 이 회사를 집어삼킨 시러스로직은 범용 모바일 오디오 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다. 국내의 스마트폰 업체는 시러스로직이 덩치를 키우자 대항마를 찾고 있다. 아이언디바이스는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내에서 오디오 SoC를 설계할 수 있는 업체는 아이언디바이스가 유일하다.

박기태 아이언디바이스 대표는 "오디오 허브 SoC에 탑재되는 각종 설계자산(IP)은 모두 독자 개발한 것으로 고객사로부터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향후 웨어러블 같은 사물인터넷(IoT), 보청기 등 헬스케어 분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오랜 기간 기술을 개발하며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아이언디바이스는 2008년 설립됐다. 지난해 매출은 11억4700만원. 올해 21억원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면 오는 2020년 980억원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회사는 최근 고객사 협력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박 대표는 삼성전자 시스템LSI 출신으로 삼성부천 아날로그 반도체 공장(페어차일드가 인수)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한주영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

그래핀을, 年 10톤 규모 산화그래핀 양산

시흥에 세계 최대 생산공장 준공
kg당 수십만원대 가격대로 공급 예정

벤처기업이 연 10톤 규모 산화그래핀 양산을 시작한다. 대규모 양산이 어려워 1kg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산화그래핀 가격을 낮춘다. 그래핀 소재를 활용한 응용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희준 그래핀을 대표는 16일 경기도 시흥시 산화그래핀 생산공장 준공식에서 "매일 톤 단위로 산화그래핀 공장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 공장"이라며 "1kg당 수십만원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핀 소재를 적용한 상용제품 개발에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준공식에는 경인양행, 동진세미켄, 대우전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내 소재업체,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래핀(Graphene)은 탄소 단원자층을 말한다. 벌집 모양을 한 2차원 탄소 평면이 켜켜이 쌓여 흑연(Graphite)이 된다. 흑연의 적층구조에서 떼어낸 하나의 층이 그래핀이다. 그래핀은 높은 전자이동도와 단단한 강도를 지녀 '꿈의 신소재'라고 불린다.

그래핀을 시흥 공장에서 화학적 박리 방법을 이용해 산화그래핀, 환원그래핀을 양산한다. 흑연을 과망간산칼륨 등 중금속 산화제, 황산과



유희준 그래핀을 대표가 16일 경기도 시흥시 산화그래핀 공장 준공식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

화학반응시켜 산화그래핀을 얻는다. 산화그래핀은 산소작용기를 포함한 탄소층을 말한다.

산화그래핀은 산소작용기를 함유하기에 탄소 고유의 전도성을 갖지는 못한다. 전기나 열 전도성이 없는 산화그래핀을 빛, 열, 화학작용으로 산소작용기를 없앤 상태가 환원그래핀이다. 이 과정에서 방열재료, 전자파 차폐 등 산업에 활용 가능한 그래핀 플레이크(Flake)를 얻는다.

그래핀을 시흥 공장은 연간 산화그래핀 10톤을 생산한다. 환원그래핀 제조설비에서는 연간 5톤의 산화그래핀을 환원그래핀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핀을 20억원에 들여 660㎡(약 200평) 부지에 공장을 완공했다. 지난해 6월 'CKD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에서 10억원을 투자 받았다.

그래핀을 핵심 기술은 정제 기술이다. 산화공

정 후 산화그래핀을 뽑아내는 정제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양의 산폐액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산화그래핀 1kg을 만들 때 산폐액 1톤이 나왔다.

그래핀을 특정한 물리·화학적 조건을 만들어 산폐액과 산화그래핀을 분리한다. 고효율 정제분리 기술로 산폐액 발생량을 100분의 1로 줄였다. 기존 산폐액과 산화그래핀을 분리하는 데 통용되던 원심분리기와 필터설비보다 공정속도도 더 빨라졌다.

유 대표는 "마이크로웨이브 연속식 산화공정까지 적용되면 산화그래핀 가격이 1kg당 10만원 안으로 떨어질 날이 온다"며 "적용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던 거의 모든 전자재료 분야에 그래핀이 쓰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준기자 1964winter@etnews.com



효성, 佛 방위산업 전시회서 아라미드 방탄헬멧 공개

효성은 13~17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방위산업 전시회 '유로사토리'에 참가, 아라미드 방탄헬멧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이 첫 선을 보인 아라미드 방탄헬멧은 기존 아라미드 헬멧의 방탄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 이상 무게를 줄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반도체 장비 고객만족도 28년 연속 '베스트10'

아드반테스트

아드반테스트(대표 쿠로에 신이치로)는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VLSI리서치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사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8년 연속 '베스트 10'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VLSI리서치 고객만족도 조사는 1988년 시작된 업계 유일의 조사다. 이번 조사는 반도체 시장 고객에게 얻은 5만4282건 답변을 토대로 이뤄졌다. 공급업체 성능, 고객서비스, 제품 성능 3가지 핵심 요소에 근거한 15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아드반테스트는 시스템 가동시간, 장치 신뢰



성, 추천할 만한 공급업체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VLSI리서치 측은 "아드반테스트 성공은 오랜 세월 개발에 열정을 갖고 혁신하는 업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아드반테스트는 28년 동안 반도체 테스트의 표준이었고, 지금도 첨단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